

# 군 공항 이전 놓고 광주-전남 미묘한 신경전

### 광주, 시민단체 창립총회 등 사업 추진 박차 전남, 대응 자제하지만 '밀어붙이기' 불쾌감

군사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와 전남도가 물밑 신경전을 벌이면서 미묘한 갈등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군공항이전 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데 이어 관련 시민단체의 창립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을 도시에 내거는 등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일체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양 지자체간 갈등 구도가 이전협의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7일 광주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군사공항 이전 시민추진협회 결의대회 및 창립총회와 군사공항 이전에 대한 홍보전력 수립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놓고 양 기관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오는 22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광주 군 공항이전 시민추진협회의 시민 결의대회 및 창립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광주도시에 내걸린 것과 관련 전남도가 광주시에 진행상황 등을 전화로 문의한 것이다. 또 이날 오전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홍보 본격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배

포했다가 오후에 이를 철회하는 등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전남도와 이주 예정 후보 지역의 협약한 분위기를 고려해 보도자료를 취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군공항 이전사업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며 지역민들이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시는 군 공항 이전사업을 알리는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군 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이전 절차, 이전 부지 주변 지원사

업, 중전부지 개발계획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문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후보지 선정 이후 발생할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 시는 후보지 실태조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주요 쟁점별 갈등요소 파악 및 해결방안 분석, 갈등 해소소 위한 해결방안 도출 등을 담은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갈등 영향분석 용역'에도 착수하는 등 군공항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전용 홈페이지 개

설 등 광주시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관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전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묘한 갈등을 빚으면서 군사공항 이전문제가 또 다시 수렁속에서 빠져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편,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광주시가 5조7,480억원을 들여 15.3㎢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고, 8.2㎢의 중전부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황애란 기자



김지사 해외서 투자유치 활동 7일(현지시간) 인도 콜카타시 비스와방글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Bengal Global Business Summit 2019) 개막식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전남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등의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 4,000여명이 참석해 경제교류와 투자정보를 공유했다. /전남도 제공

## 전남도 노인일자리 올해 4만개 늘린다

### 1,100억 투입...사회서비스형 등 신설 운영

전남도가 올해 총 1,159억원을 들여 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3만3,000개 보다 7,000개 늘어난 규모다. 우선 올해 정부의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겨울철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실내활동에 한해 조기 실시하고, 실외활동은 이달 중순부터 실시한다. 특히 월 30시간,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활동의 질적 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신설돼 월 60~66시간, 10~11개월로 운영된다. 주휴수당 포함 최대 73만원까지 지급돼 참여 어르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서비스형은지역아동센터·보육시설 등 아동시설지원과 장애인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시설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또 자체사업비를 들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신규 시장형사업에 초기투자비 3,000만원을 지원한다. 실버카페, 역사문화콘텐츠 연계 사업 등 전남형 노인일자리 200개를 추가로 발굴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메주 만들기, 통발 제작, 농산물 공동생산, 손뜨개 등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경로당 공동작업장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30곳으로 확대한다. 접수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의는 각 시군(읍면동 포함) 노인일자리 담당부서나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정근산 기자

## 전남 신남방지역 경제협력 교두보 마련

### 김 지사, 인도상의 등 6천만 달러 MOU 체결

인도를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7일(현지 시각) 웨스트벵갈주와 6,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입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남방지역 경제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웨스트벵갈주가 주최한 경제·무역 박람회인 '벵갈 글로벌 비즈니스 서밋(Bengal Global Business Summit)'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 지사는 "조선, 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웨스트벵갈주에는 500개가 넘는 IT기업이 있다. 김 지사는 또 마마타 바너지(Mamata Banerjee) 웨스트벵갈주 총리와 면담하고, 경제, 문화 분야 등 두 지역의 지속적 교류 확대를 약속하는 '전라남도-웨스트벵갈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도상공회의소와 화학·비료·조선·농수산물 분야 5,000만 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MOU를, 현대엔테크와 인도 타타그룹 간 1,000만 달러 규모의 선박용 엔진 및 조선기자재 수출입 협약을 맺었다. 인구 1억명이 거주하는 웨스트벵갈주와 경제협력 및 교역이 활성화되면 전남지역 기업의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3%로 중국보다 높은 전망이다. /정근산 기자

###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로

광주시가 오는 3월 출시하는 지역화폐 명칭을 '광주상생카드'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화폐 도입은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시는 지난 1월4일부터 13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명칭 공모를 실시해 2,24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들은 서면심사, 시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300만원), 우수상 2명(각 50만원), 장려상 5명(각 20만원), 광주시랑상 20명(각 5만원) 등 총 28명을 선정했다. /황애란 기자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알림 문자 발송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발령상황과 대응요령 등을 알려주는 무료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밝혔다.

무료 알림 문자서비스는 전화(062-613-7620)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는 인터넷 포털과 시 홈페이지에서도 제공된다. /황애란 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